

# 오르피아



JUSTIN DYE · DEVON CADY-LEE



# 오르피아

JUSTIN DYE

글

CATHY PARK

번역

DEVON CADY-LEE

그림

JIHYE SOPHIA HONG

식자

JOHN J. HILL

그래픽 디자인

RAPHAEL AHAD

TREVOR JACOBS

KEVIN MICHAEL JOHNSON

PETER LEE

LUKE MANCINI

OSCAR VEGA

VALERIE WATROUS

크리에이티브 자문

KRISTOFFER BARCARSE

COLTON CARMINE

TAYLOR HANKINS

프로듀서

FELICE HUANG

CHARLOTTE RACIOPPO

GIL SHIF

도움 주신 분

기어 스토어에서 다른 블리자드 상품을 살펴보세요.

[GEAR.BLIZZARD.COM](http://GEAR.BLIZZARD.COM)



HEROES OF THE STORM #4 © 2018 Blizzard Entertainment, Inc. All rights reserved. Heroes of the Storm and Blizzard Entertainment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Blizzard Entertainment, Inc.,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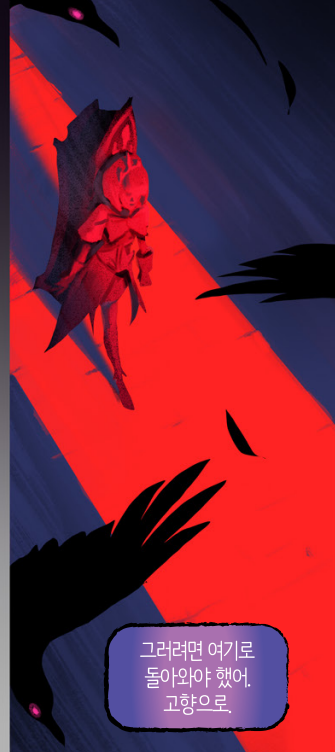


이런 집을 바라 적 없었어.  
내가 바라 건 아빠가 돌아오는 것뿐.  
하지만 아빠는 나 대신  
자신의 성전을 택했지.



아빠 무고한 이들을 다치게 하고...  
평화로운 세계에 전쟁을 몰고 왔어.

...더는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여기로  
돌아와야 했어.  
고향으로.



아니, 적어도 한때는  
고향이었던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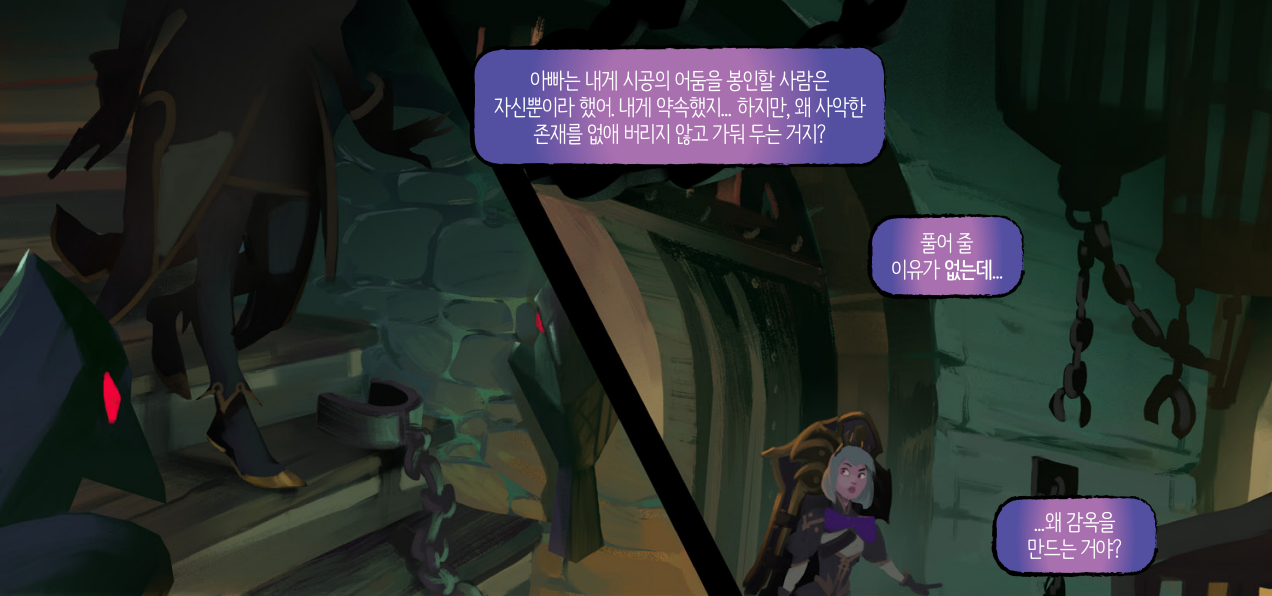


우린 한 가족이었지.

영마가  
우릴 떠나기 전까진...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땐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  
곧 나도 집을 떠났지...





아빠는 내게 시공의 어둠을 봉인할 사람은  
자신뿐이라 했어. 내게 약속했지... 하지만, 왜 사악한  
존재를 없애 버리지 않고 가둬 두는 거지?

풀어 줄  
이유가 없는데..

...왜 감옥을  
만드는 거야?



오르피아?  
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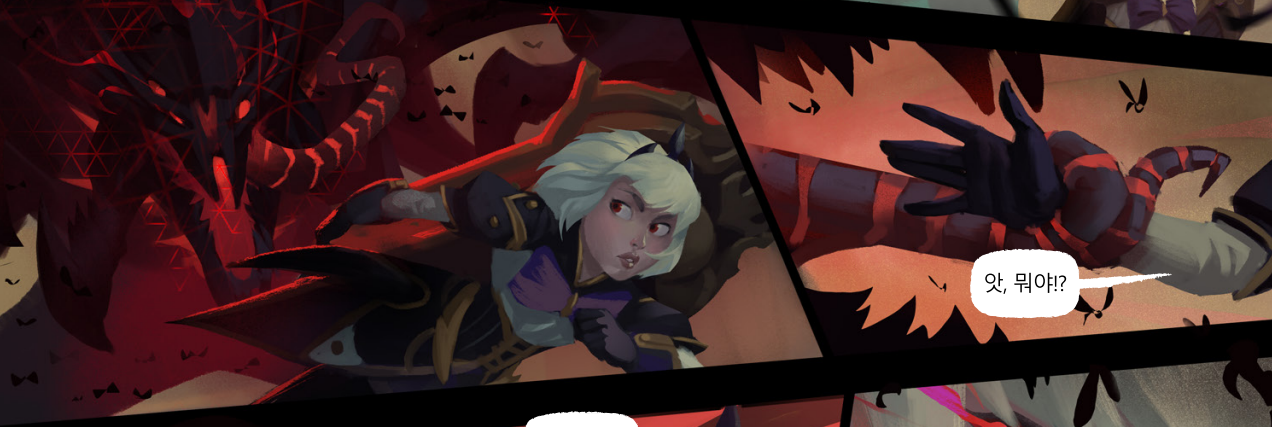
조심해!

나는  
복종한다!





예의 좀 지켜!



앗, 뭐야?!



아아악!



저리...



...꺼져!







아야!

가만히 있으렴.  
눈이 예전같지  
않단 말이다.

아아아아!

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여길  
들어오면 쓰니...

많은 게 변했단다,  
꼬마 아가씨.  
주인님은 더 이상  
예전 그분이 아니야.



누군가 그분에게  
상처를 입혔지... 그 뒤론  
포악한 사람이 됐어.

그래...  
훨씬 낫구나.



흐음?  
이건 뭘까?

니브, 만지지 마!  
너까지 타락하게  
둘 순 없어!



온갖 방법을  
다 써 봐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내 힘으로는  
파괴할 수 없어...

→하야~  
너나 네 아버지나  
늘 시야가 좁구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파괴하려고만 들지.

바보  
같은 짓이야.



살면서 한 번쯤은  
네 어머니처럼  
생각해 보려무나.





진실을  
알고 있던  
그분처럼!

어떤 악은  
너무나 독한  
나머지...



...그들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지.

오래 걸렸구나.





네 반항도  
이걸로 끝이다,  
오르피아.

뭐, 날 죽이기라도  
하려고? 이렇게 나와 한  
약속을 전부 어길 셈이야?



배은망덕한 녀석!  
내가 네 버릇을  
망쳐 놔구나!



내 버릇을 망쳐?  
아뵤 날 배신한 거야!



그 힘은 내가 먼저  
부렸던 것이다!

네 잔재주 따윈  
내 손바닥 안이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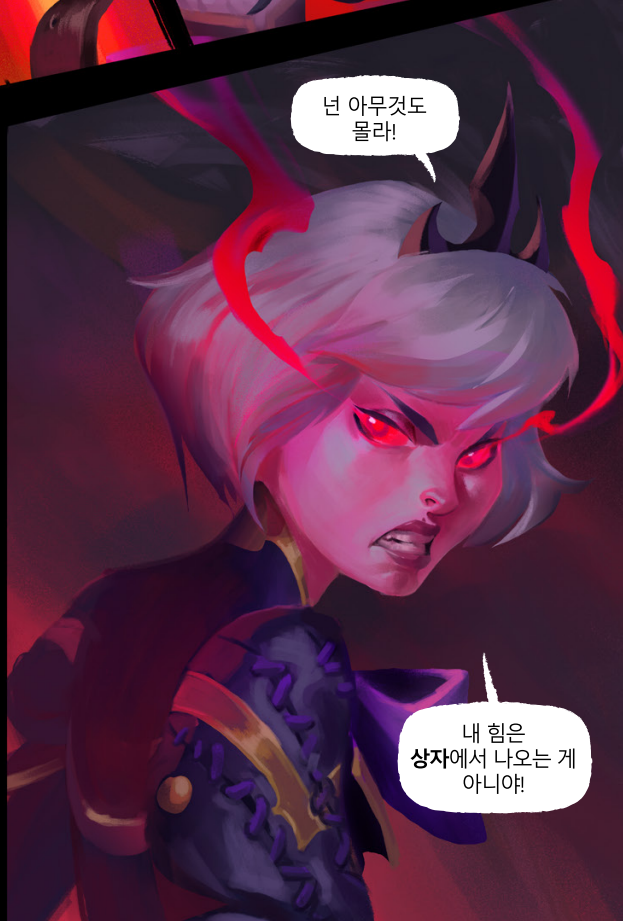
안 돼!



꼭 네 어머니처럼...

이 필멸의 세계를 구하려면 희생이 필요한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이제 마법의 상자로 잔피를 부릴 수도 없겠지.



넌 아무것도 몰라!

내 힘은 상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가족의 힘이야!  
네가 저버린  
그 가족!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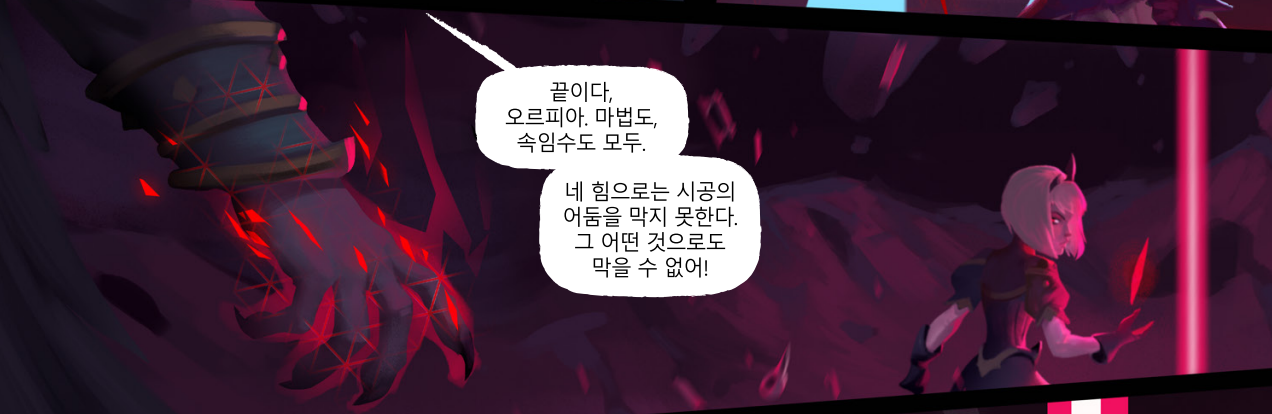




아직도 조상의 힘을  
고수하고 있다니...



왜!?  
왜 그 아이를  
지키는 것이냐?



끝이다,  
오르피아. 마법도,  
속임수도 모두.

네 힘으로는 시공의  
어둠을 막지 못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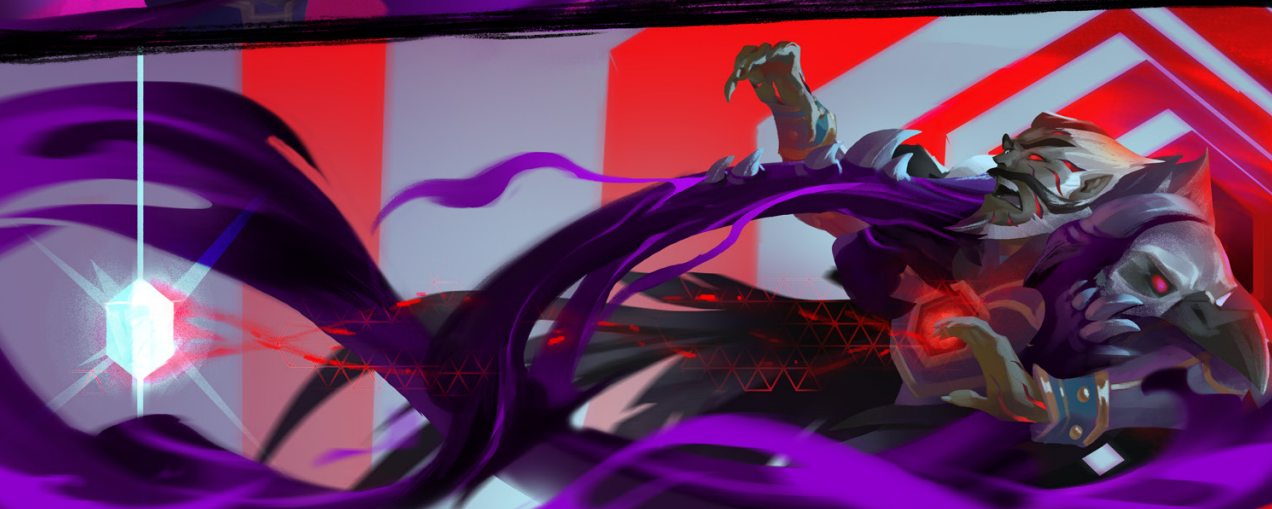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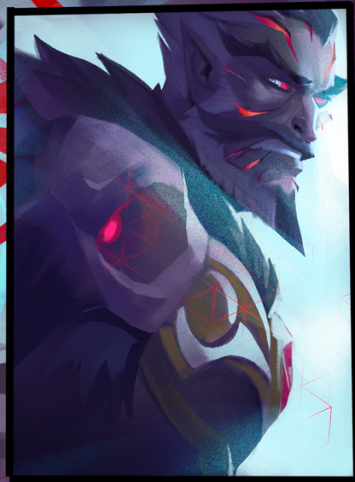


그래...  
하지만 어떤  
악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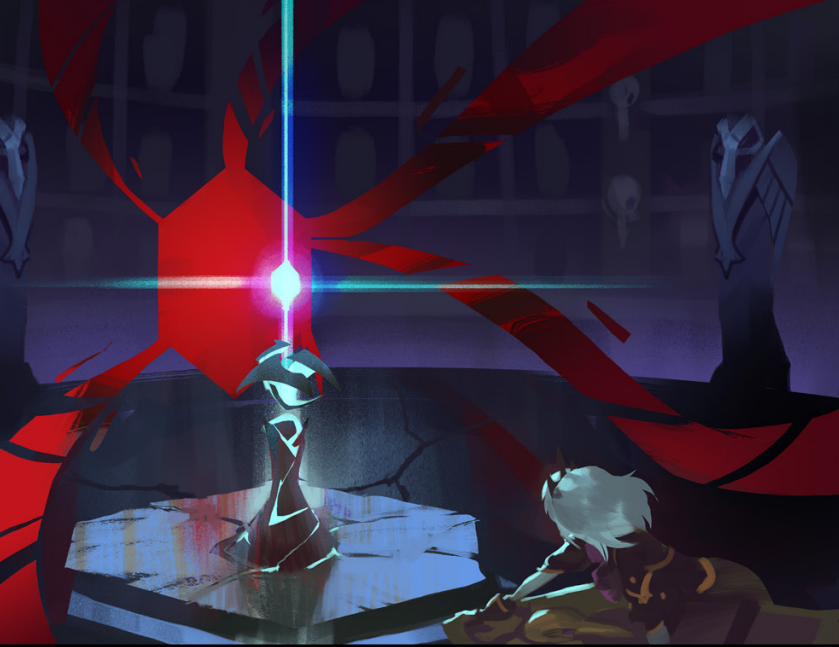


크악!









내가  
해냈어...

그래, 맞다.  
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게야.

아빠 아직  
살아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어리석은  
소리 마라.  
**당연히** 끝이  
아니지.

하지만  
우린 이겼다...  
당분간은 이걸로  
된 거야.

